"금호타이어 매각시 생산량 30% 줄어 9139억↓"

광주전남연구원 밝혀 … 지역 고용도 2278명 감소

해외매각 재검토·핵심기술 유출 방지책 마련 시급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으로 생산량이 30% 줄어들 경우 광주·전남에 9000억원대의 생산감소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광주전남연구원 김봉진 책임연구위원이 '광전리더스 INFO(인포)'에 실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에 따른 지역경제의 손실 효과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와 곡성공장 생산량이 30% 줄어들면 광주·전남은 9139억원의 생산이 줄고, 고용도 2278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 연구위원은 "기술 수준과 시장경쟁력이 더 낮은 해외 기업에 매각하면 평균 30% 생산 감축이 발생한다"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전국적으로 생산감소 유발 2조1846억원, 부가가치 감소 유발 6309억원, 고용 감소 유발 7558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광주는 이 가운데 생산감소 4688억원, 부가가치 감소 964억원, 고용 감소 1458명 등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김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전남은 각각 4451억원, 1326억원, 820명이 유발될 것으로 추정했다.

생산 감소 예상 규모는 광주 지역 총생산(GRDP)의 1.44%, 전남 GRDP의 0.68%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광주와 곡성공장 생산을 100% 감축하면 전국적인 생산감소 유발 규모는 7조2820억원, 부가가치 감소는 2조1031억원, 고용 감소는 2만5194명으로 추정됐다.

광주와 전남의 생산감소 유발 예상 규모는 각각 1조5625억원, 1조4838억원으로 3조원을 넘는다.

김 연구위원은 "금호타이어가 기술력이 낮은 해외자본에 매각되면 편법을 동원한 기술 유출로 국내 생산제품의 시장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며 "해외매각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M&A 등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에 치과용 소재부품센터 들어선다

테크노파크 단지내 준공

다음달 21일 개소식

광주에 치과용 소재부품센터가 들어선다.

광주시는 23일 "북구 테크노파크 2단지 내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치과용 소재부품센터(치과센터)가 준공돼 다음달 21일 개소식을 한다"고 밝혔다.

치과센터는 2002년 건립한 타이타늄센터에 이은 것으로 생체의료소재의 핵심인프라 중 하나다. 부지 5875㎡에 전체면적 6313㎡,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국비와 시비 등 250억원이 투입됐다.

광주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돼 센터 건립과 기업 입주 등 세부적인 사업을 진행했다.

치과센터는 앞서 건립한 타이타늄 센터와 함께 임플란트 치아는 물론 인공관절 등 정형외과용 의료소재 시장의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의 핵심 전략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문을 여는 치과센터에는 각종 의료기기 개발과 시험 장비 등을 갖췄으며 입주업체와 함께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에 나선다. 근무 인력도 100여명에 달하는 등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 음악회

광주시소방학교

시각장애 음악인으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실내관현악단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가 새내기 소방관들에게 희망과 감동의 선물을 선사했다.

광주시소방학교는 23일 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새내기 소방관 9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 음악회를 열었다.

2007년 창단된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는 이날 음악회에서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요한 슈트라우스의 '안넨폴카' 등을 선사했다.

음악회를 관람하며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푼 새내기 소방관들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전한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에 뜨거운 박수갈채로 화답했다.

새내기 소방관들은 지난 7월24일부터 소방 교육 등을 받고 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폭염 막는 흰색 지붕 23일 옥상을 흰색으로 칠해 시공 전 54.5도에서 시공 후 33.8도로 온도가 20.7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다세대 주택의 모습. 환경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선도도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해운대구는 3~4층 다세대주택이 몰려 있는 반송2동에서 쿨루프 조성사업(251곳)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전국 최초 운영 '마음건강주치의' 큰 성과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마음건강주치의' 제도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시는 정부가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과 관련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지난해 6월 마음건강주치의제를 도입했다. 현재 마음건강주치의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광주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마음건강주치의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센터에 상주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과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상담, 교육 및 정보 제공, 1차적 진단, 적극적인 치료 연계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마음건강주치의 시행 1년을 맞아 최근 분석작업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그동안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회 광주·전남 지회 회원 165명중 35%인 57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대학병원 전문의는 7명(12%), 일반 정신의료기관 전문의는 50명(88%) 이었다. 또 광주시민 2477명이 마음건강주치의 상담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서비스는 ▲정신건강 관련 정보 제공(41.3%) ▲서비스 연계(30.2%) ▲지속상담(20.4%)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중독관리센터 서비스 등록(5.1%) ▲기타(3%) 등이다. 시는 유관기관 종사자를 위한 사례자문(751회 2266명) 및 프로그램(281회 6338명)도 함께 진행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CCTV 활용 112긴급출동지원서비스 추진

범죄·화재·재난 신속 대응

광주시는 23일 "CCTV를 활용한 112긴급출동지원서비스 등 시민안전 5대 연계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CCTV 관제센터에서 취합한 각종 동영상을 범죄나 화재 발생시 긴급 출동하는 경찰이나 소방대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해준다. 광주에는 학교, 골목길, 주택가, 공원, 도로 등에 모두 4704개의 CCTV가 설치돼 있다.

CCTV를 통해 납치, 강도 등 긴박한 사건 발생시 신속한 현장상황 파악이 가능하고 사건 현장에 긴급 출동하는 경찰관에게는 현장 사진이나 범인 도주경로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 화재, 구조, 구급 등 상황 발생시 소방관들에게 실시간으로 영상과 교통정보를 제공해 골든타임 확보에도 도움이 기대된다.

이밖에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에 대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상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사업비 6억원을 들여 경찰과 소방기관 등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내년 초 시범운영 한 뒤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구축되면 그동안 각종 범죄와 화재, 재난재해 발생 시 해당 기관에 통보, 처리했던 것을 실시간 영상을 연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청년드림사업' 호응… 2기 모집 300여명 참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직무경험과 급여를 지원하는 광주시의 '광주청년드림(Dream)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청년 드림사업은 청년의 장기 미취업 상태를 방지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신규 도입된 일자리 디딤돌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1기 참여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2기 참여자 모집은 지난 3일부터 시작돼 21일과 22일에는 시청 로비에서 청년들의 직무상담과 면접, 기업과 청년의 만남의 장 등으로 펼쳐졌다. 이 자리에는 30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했다.

청년드림사업은 현장 상담·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이 공공기관, 기업,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청년활동의 5개 유형으로 나뉜 다양한 일 경험 내용을 알고 적성과 관심에 맞춰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과 직무를 최종 선택하도록 했다.

지난 19일 광주를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광주청년 드림사업의 취지와 성과에 대한 발표를 청취하고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국비 지원을 통해 전국 모델로 확산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2기 참여자 현장 상담·면접은 28일 한 차례 더 진행되며, 30일까지 청년과 기업의 매칭을 통해 9월1일부터 일 경험을 시작하게 된다. 또 9월1일에는 1기 참여자가 다 같이 모여서 그동안의 일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2기 참여자와 교류하는 '청년드림 성과공유회'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6070 낭만곡성 …' 등 6개 선정 '최다'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에 곡성군의 '6070 낭만곡성 영화路(로), 청춘어濫(람)' 등 4개 사업과 지역개발 연계 공모를 한 담양·순창군의 '순담 Meta-Circle 프로젝트' 등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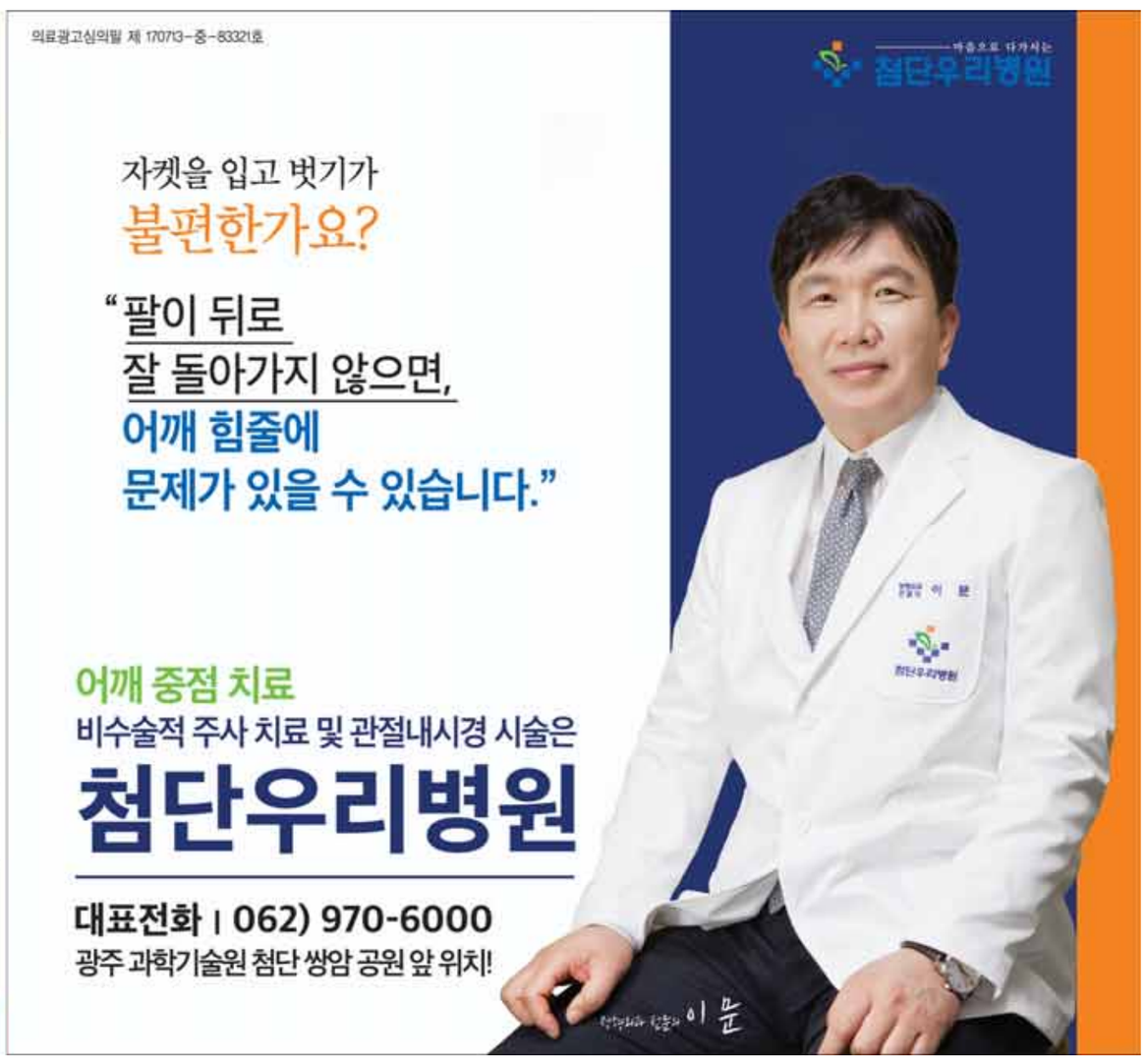
전국에서 19개 사업이 선정된 가운데 전남에서 6개 사업이 포함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국토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H/W)과 지역특화, 문화 콘텐츠 등(S/W)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20억원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신규로 공모한 지역개발 연계사업은 2개 이상의 성장촉진지역의 관광·산업·문화 등 지역특화자원을 기반으로 광역적 스토리·테마를 통해 지역 간 연계 발전 방안 마련 및 상생의 지역 발전 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30억 원이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곡성군의 '6070 낭만곡성 영화路, 청춘어濫 사업'은 곡성읍 일원에 영화 '곡성' 촬영지와 옛 곡성극장을 활용한 '영화路'를 조성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낡고 방치된 도심 빈 사무실을 청춘어람센터로 새단장해 지역민과 예술가들의 창작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게 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